

朝鮮初期의 醫學書「食療纂要」에 對한 研究

The Book of Dietary Treatment(食療纂要) from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辛 承 云(Shin, Seung-Woon)*

◁ 목 차 ▷

- | | |
|---------------------|--------------------|
| 1. 序 論 | 5. 「食療纂要」 尙州板에 보이는 |
| 2. 저자 全循義 | 國語學資料 |
| 3. 「食療纂要」의 編纂과 刊行 | 6. 結 論 |
| 4. 「食療纂要」의 構成과 記述體系 | <참고문헌> |
| | <參考圖錄> |

< 초 목 >

이 논문은 그간 없어진 책으로 알았던 「食療纂要」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이 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책은 조선왕조 초기인 世祖 시대의 어의(御醫)를 지낸 전순의(全循義)가 1460년에 저술한 것이다. 그는 음식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다시 말하면 식이요법(食餌療法)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여 「食療纂要」를 저술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저술된 서적 가운데 매우 드문 자료이다.

본 논문은 먼저 저자인 전순의의 생애와 이 책의 편찬 및 간행에 대하여 다루었고, 다음으로 현존하는 판본(板本)인 상주판(尙州板)과 양양판(襄陽板)의 항목과 기술체계를 비교하여 두 판본의 차이점을 밝혔으며, 끝으로 상주판에 보이는 한자(漢字)로 표기된 우리말 물명(物名)을 뽑아 정리하였다. 건강의 유지관리와 질병의 치료에서 음식요법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어의(御醫)가 편찬한 식의서(食醫書)인 이 책의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특히 상주판(尙州版)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고 40여 년이 지난 시기인데도 우리말 물명(物名)을 한자어(漢字語)로 표기하고 있어서 의학사(醫學史) 연구와 함께 국어사(國語史)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要語：全循義, 食療, 食療纂要

* 成均館大學校 文科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ss0311@skku.edu)

접수일: 2008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08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19일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rehensive and basic topics in *The Book of Dietary Treatment*(食療纂要) which had been known be missing, but recently found.

Cheon Soon-Ui(全循義), a royal physicia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rote this book in 1460. With much interest in dietary treatments, he collected the documents on the topic, and wrote this book. It is one of the rare books regarding dietary treatments writte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1) introduces Cheong Soon-Ui's biography, 2) describes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is book, 3) compares the items and description of the Sangju(尙州) edition with those of the Yangyang(襄陽) edition, which are two existing editions, to identify their differences, and 4) translates the names of object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 the Sangju edition(尙州板) into Korean and puts them in order.

With many people interested in dietary treatment and health care in these days, it is very interesting to consult the content of this book written by the royal physician of the Joseon dynasty. This book is also valuable for researching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as well as medical history, because all of the Korean names of objects in the Sangju edition were still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more than forty years later since the announcement of Hoonminjungeum(訓民正音).

Key words : Soon-Ui Cheon, The Book of Dietary Treatment, Dietary Treatment

1. 序 論

「食療纂要」는 책 이름 그대로 食療에 관한 주요한 처방의 모음집이다. 食療은 食治라고도 하며, 음식을 통한 질병의 치료를 지칭하는 말이니, 「食療纂要」는 바로 이러한 食治를 다룬 중요한 처방을 纂集한 醫書인 것이다.

필자가 「食療纂要」라는 書名을 처음 접한 것은 조선조 최고의 文獻學者라 할 수 있는 敬窩 金佺(1597-1638)의 「海東文獻總錄」을 통해서이다. 민족문화추진회 國譯研修院의 교과목으로 韓中典籍解題가 設講되고, 필자가 이 과목을 맡으면서 韓國 古典籍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로 선택한 것이 「海東文獻總錄」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책은 간략한 解題書이지만 序文이나 跋文 등을 抄出하여 기록해 놓은 관계로 17世紀 이전의 한국 전적을 概觀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는 책이다. 그러나 간행되지 못하고 筆寫本으로만 전해오다가 1969년에 와서야 처음 영인본으로 간행된 관계로 강의를 위해서는 해제 대상서를 직접 조사해서 本文의 對校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런 준비 과정에서 「食療纂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 책이 전해지지 않는 逸書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매년 이 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내 머리에서 「食療纂要」를 떠올리고는 했지만, 더 이상 이 책에 대한 추적은 단념하고 있었다.

그 후 「食療纂要」가 다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安東市郡 지역 소재 古書를 조사한 目錄에 「食療纂要」 1책이 수록된 것을 보면서이다. 그러나 개인 소장본인데다가 다른 일로 바빠서 가서 열람할 형편은 아니었다. 다만 逸書가 아니라 天下의 唯一 孤本인 책이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구해보리라고 생각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후 國史편찬위원회의 장서를 조사하다가 이 책의 복사본을 발견하고, 知人의 도움으로 얻어 볼 수 있었다. 서명을 안 지 20여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 책은 「海東文獻總錄」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책이었다. 金佺은 그의 해제에서 “物類의 아래에 간혹 속말로 풀어서 찾기 쉽고 알기 쉽게 하였다.”¹⁾고 하였는데 이 책은 어디에도 諺釋이 있는 곳은 없었기

1) 金佺, 上揭書: “物類之下 或以諺釋 易考而易曉.” 참조.

때문이다. 그러나 序文과 목차에서 이 책에 대한 편찬과정과 구성 및 서술체계 등에 대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오랜 동안의 관심에 대한 보답일까. 수년 전에 우연히 지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食療纂要」의 異本을 知見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연구를 끝내고 한국서지학회 학술 발표회에서 간략히 보고한 것이 5년 전인 2003년 11월이다.²⁾ 필자가 이 책을 소개한 뒤로 관련학계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번역본이 간행되기도 하였다.³⁾ 그간 필자의 사정으로 완성된 논문의 발표를 미루다가 이제 다시 기회를 얻어 발표하는 것이 본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저자인 全循義의 생애와 그의 저서인 「食療纂要」의 편찬과 간행, 그리고 이 책의 각기 다른 版本인 襄陽版과 尙州版의 構成, 상주판에 보이는 物名의 吏讀式 註解 등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잡아 다루고자 한다.

2. 저자 全循義

全循義는 조선 世宗·文宗·端宗·世祖의 4朝를 歷事한 醫官으로, 조선조의 대표적 醫書의 하나인 「醫方類聚」의 편찬에 참여한 저명한 醫官이다. 그러나 그의 出身이나 家系는 물론 생몰년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두루 조사해 보았지만 그를 중심으로 다룬 傳記資料는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왕조실록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 散見되는 그와 관련된 零星한 자료를 초출하여 그의 出身과 醫學의 受學, 著述을 비롯한 학문 활동, 그리고 官歷의 순으로 그의 行歷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2) 辛承云, “새로 발견된 「食療纂要」에 대하여”(2003.11.8. 발표회 요지, 아단문고 참조). 본 논문의 집필 과정에서 尙州板 食療纂要의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 열람의 편의를 제공해 준 김영복(문우서림)선생과 배영대(중앙일보) 기자에게 지면을 빌어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襄陽板 食療纂要(필름)의 이용에 협조해준 관계 제위께도 사의를 표한다.

3) 金鍾德 역, 「食療纂要」(고농서국역총서9), (수원: 농촌진흥청, 2004,12).

산견하는 자료 중에서 全循義의 家系를 알려주는 자료는 「端宗實錄」에 수록된 대사헌 權蹲 등이 올린 탄핵상소에서 “全循義 係本庸賤 遭遇聖明 屢蒙超擢位至三品”이 유일한 것이다. 상소의 이 대목은 그가 임금의 知遇로 발탁된 賤民 출신의 醫員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⁴⁾ 그의 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인 全石童이 睿宗 원(1469)년에 시행한 增廣試의 進士試 2等에 급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榜目に 의하여 全循義의 본관이 鎭安이라는 것과 전석동은 과거에 응시하던 시기에 이미 通禮院의 정5품관인 贊儀를 역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 이는 父親의 蔭德으로 출사한 것이다. 실제로 그가 진사시에 급제하기 이전인 세조 11(1465)년에 漢城府의 南部令을 지낸 사실이 확인된다. 진사 급제 후에는 監察과 延豐縣監을 거쳐 醫術을 안다는 점이 감안되어 新溪縣令을 역임하였다.⁶⁾

천민 신분의 全循義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원으로 발탁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추측해볼 수 있는 자료로 「端宗實錄」에 보이는 典醫監의 提調가 건의한 다음 기사가 참고가 된다.

醫藥은 사람의 사사로운 질병을 구제할 뿐 아니라, 위로는 君父에 관계가 있으니 신하와 자식이 된 자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중국 조정의 제도에 御醫院・太醫監을 설치하고, 반드시 해박하고 정통하여 대대로 그 업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책을 맡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그 일을 중하게 여기어 三醫司를 두고 여러 방법으로 勸課하여 그 術業을 精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대대로 의술을 연구하는 專門의 학업이 없어, 그 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대개는 모두 糟粕을 알 뿐이니, 옛사람의 여러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精微한 깊은 이치를 알겠습니까? ... 世宗께서 이를 염려하시어 三司 이외에 따로 醫書를 習讀하는 法을 세워 方書를 읽게 하고 후하게 勸獎하였는데 李孝信・全循義・金智 같은 무리가 조금 그 방술을 체득하였습니다.⁷⁾

4) 實錄廳, 端宗實錄 卷10 端宗 2年 3月 丁卯(16) 條 “全循義 係本庸賤 遭遇聖明 屢蒙超擢 位至三品 賜與無算...”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司馬榜目」(CD판),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6) 實錄廳, 「世祖實錄」 卷37 世祖 11年 10月 丙子條. 全石童은 進士及第 이후로 監察을 거쳐 成宗 9년에는 延豐縣監, 同16년에는 新溪縣令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成宗實錄 卷88 成宗9年 正月甲戌條, 同書 卷181 成宗16年 7月 丙辰, 丁巳, 庚申條 參照).

앞의 인용문은 세종이 三醫司 이외에 醫書를 習讀하는 法(制度)을 세우고 특별히 勸獎하는 가운데에서 양성된 사람이 李孝信·全循義·金智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말한 사람이 전의감의 책임자인 提調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순의가 世宗朝에 시행한 醫書習讀官 출신임에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⁸⁾ 세종은 이러한 의서습독관이라는 제도 이외에도 의원들의 의술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對馬島主의 書契를 갖고 입국한 僧醫인 崇泰가 醫術에 精通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興天寺에 머물러 있게 하고, 의원 全循義와 金智·邊漢山을 보내어 의술을 傳受받도록 하기도 하였다.⁹⁾

전순의의 저술활동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醫書의 편집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醫書를 편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世宗 27(1445)년에는 집현전 부교리 金禮蒙 등과 함께 의관으로써 365권에 이르는 방대한 醫書인 「醫方類聚」의 편집에 참여하였다. 全循義는 당대의 名醫로 평가받으면서¹⁰⁾ 醫書의 편찬에 참여하였는데, 편집 참여자를 기술하면서 醫員으로는 全循義의 이름을 맨 앞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편집에 그의 역할이 컸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7) 實錄廳, 「端宗實錄」 卷13 端宗3年 正月辛未(25)條 “典醫監提調啓 醫藥 非特救人扎瘡上有關於君父 爲人臣子者之所不可忽也…故中朝之制 設御醫院太醫監 必以該博精通世傳其業者 俾掌其職…我國亦重其事 置三醫司 多方勸課 欲精其術 然既無世醫專門之學 業其術者 率皆糟粕 其於古人諸方 安能窺其精微之蘊奧乎…世宗軫念 令三司之外 別立醫書習讀之法 俾讀方書 敦加獎勸 如李孝信·全循義·金智輩稍得其術…”

8) 전순의가 醫書習讀官으로 있었던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순의가 의원자격으로 錦城大君의 胥에 따라 옷 한 벌을 하사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늦어도 세종 22(1440)년 6월 이전일 것으로 생각된다(世宗實錄 卷89 世宗22年 6月 辛卯).

9) 實錄廳, 「世宗實錄」 卷116 世宗 29年 5月丙申(6)條 “對馬島僧崇泰 亦受貞盛書契而來精於醫術 上欲試之 館於興天寺 待之甚厚 命醫員全循義金智·邊漢山 傳習其業.”

10) 전순의를 名醫로 지칭하고 있는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端宗實錄」 卷10 端宗 2年 3月乙卯(4)條: 左司諫趙晤等上疏 曰 … 文宗大王 不豫之初 循義等 號爲名醫 常入 侍診候 而不謹審方書 又不議諸大臣 自信偏見.
- 「世祖實錄」 卷2 世祖元年 8月 己未(16)條: 上幸昌德宮 謁魯山 開國·定社·佐命·靖難四功臣等 進盟簇于 上及魯山 上命分賜功臣等 仍設宴…上大笑戲 使璆拳毆季甸·叔舟曰 予若手毆 雖名醫若全循義·任元濬 左右交 救, 終無効也.
- 成宗實錄 卷99 成宗9年128月 己亥(12)條: 史臣曰 國初無醫官大顯者 世盧仲禮 醫術甚精 纔陞僉知 世祖朝, 全循義·金尙珍 亦名醫 而終於嘉靖

생각된다.¹¹⁾ 이어서 세종 29(1447)년에는 金義孫과 함께 「鍼灸擇日編集」(1권)을 편집하였다.¹²⁾ 그리고 世祖 6(1460)년 11월에는 「食療纂要」의 편집을 마치고 서문을 썼는데 이 서문에 보이는 그의 직함은 嘉靖大夫 龍驤衛 上護軍이다. 가정 대부는 從2品 上階에 해당한다. 이 서문은 「食療纂要」의 저자가 전순의임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인 동시에 全循義의 醫藥論이라 할 만한 글로서 그가 食療를 중시하는 의사였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자료이다. 아울러 세조가 평소 食治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이 서문에서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詳論할 것이다.

전순의의 학술활동은 醫書를 편찬하는 일 이외에 국왕을 상대로 한 醫書의 侍講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실록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세조 5(1459)年の 侍講을 알리는 「世祖實錄」의 기사에 ‘醫員 全循義 등 11인이 醫書를 강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순의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4년 뒤인 세조 9(1463)년에 丕顯閣에서 열린 侍講에서는 同知中樞院事의 직함으로 戶曹參判 任元濬과 함께 醫學으로 侍講하였다. 강이 끝난 뒤에는 임금이 醫書 唱準人들을 불러서 의서의 편집을 磨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때의 의서의 마감에는 전순의도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마감이란 일을 잘 살펴서 심사하여 최종결정을 짓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니 이는 아마도 세조 때에 편집한 「醫方類聚」의 刊印을 위한 전 단계로 편집을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이해된다.

11) 實錄廳, 『世宗實錄』 卷110 世宗 27年 宗 10月 戊辰(27)條 “命集賢殿副校理金禮蒙·著作 郎柳誠源·司直閔普華等 哀集諸方 分門類聚 合爲一書 後又命集賢殿直提學金汶·辛碩祖·副校理李芮·承文院校理金守溫 聚醫官全循義·崔閔·金有智 編集之 令安平大君瑬·都承旨李思哲·右副承旨李師純·僉知中樞院事盧仲禮監之 歷三歲而成 凡三百六十五卷 賜名曰醫方類聚.”

12) 金禮蒙, 鍼灸擇日編集序.

13) 實錄廳, 『世祖實錄』 卷18 世祖5年 11월 戊戌(20)條 “御思政殿 受常參視事 命宰樞及文臣入殿內 … 醫員全循義等十一人講醫書.”

14) 實錄廳, 『世祖實錄』 卷31 世祖 9年 11월 己巳(15)條 “御丕顯閣 講成均儒學朴精孫等五人兼藝文鄭蘭宗等三人 經書…同知中樞院事全循義·戶曹參判任元濬 亦以醫學侍講 仍召醫書唱準人員等 磨勘醫書…”

끝으로 전순의의 官歷을 살펴볼 순서이다. 그가 처음 出仕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實錄에 그의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세종 22(1440)년 6월이다. 醫員으로서 錦城大君의 쾌유에 따라 옷 한 벌을 상으로 받은 기록인데 이로보아 전순의가 의원으로 출사한 것은 늦어도 세종22년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 27년에는 醫官으로 「醫方類聚」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동 29(1447)년에는 金義孫과 함께 「鍼灸擇日編輯」(1권)을 편집하였다. 이어서 세종 31(1449)년 12월에는 東宮의 치료에 힘쓰지 않은 데 따른 문책으로 職牒이 환수되고 內醫院의 助教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듬해인 1450년에 文宗이 즉위한 뒤에 告身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문종 2(1452)년 5월에 문종의 병을 치료하다가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病勢를 오관한 죄로 의금부에 하옥되고 이어서 典醫監의 청지기로 강등되었다가 이듬해인 端宗 원(1453)년 1월에 의정부의 건의로 방면되어 다시 내의원에 출사하였으나 같은 해 5월에 대사헌 奇虔 등의 상소로 內醫院의 출사가 중지되었다.

그후 단종 2(1454)년 2월에 告身을 환급받았고, 3월에는 軍職과 함께 科田을 환급받았다. 文宗의 서거이후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청하는 상소가 부단히 이어졌고, 그의 직첩과 과전을 還給한 뒤로는 이를 반대하는 諫院의 上疏가 이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임을 받는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순의의 이름이 다시 실록에 나타나는 것은 1455년 윤6월에 世祖가 즉위하고 나서 그 해 12월에 上護軍의 職에서 左翼原從 一等功臣에 錄勳되면서이다. 세조 2(1456)년 5월에는 僉知中樞院事가 되고, 이듬해인 1457년 3월에는 亂臣으로 처형된 嚴自治의 楊州 전지와 李保仁의 豐壤 전지를 받았다.

세조 6(1460)년 11월에 「食療纂要」의 서문을 지었는데 이 때 사용한 직함은 嘉靖大夫 龍驤衛 上護軍이었으며 嘉靖大夫 는 從 2品 上階이다. 세조 7(1461)년 7월에는 行僉知中樞院事에 임명되고, 이듬해 4월에는 同知中樞院事에 임명되었다. 세조 9(1463)년 7월에는 세조의 우환으로 임원준과 함께 입시하였고 세조 10(1464)년 10월에는 임금의 우환으로 임원준과 탕약을 감독하여 바쳤다. 이 해 11월에는 임금의 병에 侍藥한 공로로 資憲大夫 同知中樞院事로 승진하였다.

자헌대부는 正2品 下階 이다. 전순의의 공직생활에 대한 기사는 세조 12(1466)년 9월에 궐내에서 벌어진 大獵圖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成宗實錄」에 수록된 楊熙止의 啓事에 의하면 ‘世祖朝의 全循義는 벼슬이 正憲大夫 에 까지 이르렀으나 顯職에 임용한 적은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正2품의 上階에 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이상을 정리해보면 전순의는 賤民 출신으로 世宗朝에 醫員의 양성을 위한 醫書習讀 科程에서 양성된 대표적인 인물이며,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食治에 밝은 御醫였음을 알 수 있다.

3. 食療纂要의 編纂과 刊行

3.1 「食療纂要」의 編纂 시기와 목적

「食療纂要」가 언제 편찬되었는지 그 시기를 알려주는 자료는 그간 학계에 알려진 것이 없었다. 이번에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입수한 김영탁 선생 소장본 「食療纂要」에는 다행히도 저자 全循義가 쓴 序文이 수록되어 있어서 편찬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서문의 내용을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飮食이 첫째이고 藥餌는 그 다음 이다.¹⁶⁾
- ② 옛사람이 처방을 정할 때에는 먼저 음식으로 다스리고, 음식으로 낫지 않은 뒤에야 藥으로 다스렸다.¹⁷⁾
- ③ 병을 고치는 데는 마땅히 五穀・五肉・五果・五菜로 다스릴 것이지 어찌 마른 풀이나 죽은 나무의 뿌리나 씨를 써야하겠는가.¹⁸⁾
- ④ 이상에서 古人이 병을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食治(食療)를 우선으로 삼았

15) 實錄廳, 「成宗實錄」 卷282 世宗 24年 9月 丁未(丁未)條 “世祖朝 有全循義 官至正憲, 未嘗敘於顯職.”

16) 전순의, 上揭書, 序文: “人之處世飮食爲上 藥餌次之.”

17) 전순의, 上揭書, 序文: “古人立方 先用食療 食療不癒 然後藥治.”

18) 전순의, 上揭書, 序文: “治病 當以五穀五肉五果五菜治之 奚在於枯草死木之根核哉.”

음을 알 수 있다.¹⁹⁾

- ⑤ 우리 聖上(世祖)께서는 神農·黃帝·岐伯·扁鵲 등의 신묘한 의술을 祖述하시고, 항상 병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돕는 문제를 근심하셨고, 때번 醫官들이 食治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었으니, 이 문제는 醫家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²⁰⁾
- ⑥ 그러나 病者를 앞에 놓고 황급한 상황에서 여러 方書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므로 臣이 食醫心鑑·食療本草·補闕食療·大全本草 등의 方書에서 자주 쓰는 食治에 관한 簡易方을 가려내어 45門으로 엮어서 바 쳤다.²¹⁾
- ⑦ <世祖는 이 책에> 食療纂要』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나에게 序文을 쓰도록 지시하였다.²²⁾
- ⑧ <세조는> 이 책의 처방에 쓰인 穀·肉·菜·果는 비록 항상 식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복잡하여 잘못 쓸까 염려되므로 各門의 物類 다음에 더러 正音을 달아주어 사람들이 보고 분명하게 알아서 이용하는데 의심이 없게 하라고 하시었다.²³⁾
- ⑨ <이 말에서> 聖上(世祖)의 博施濟衆하려는 원칙을 알 수 있으니 지극하고도 지극하다.²⁴⁾
- ⑩ 天順 四(1460, 세조6)年 庚辰년 冬十一月 嘉靖大夫行龍驤衛上護軍 臣全循義拜首稽首謹序.

이상 序文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① - ④는 사람이 병을 치료함에 있어 食治의 중요성을 논한 것이다.

둘째로 ⑤와 ⑦ - ⑨는 世祖가 醫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醫官들에게 항상 食治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내용과 전순의가 편찬한 이 책을 「食療纂要」라 명명하고, 특히 이 책에 사용된 처방에 나오는 物名에 正音을 달아주어 누구나 보면 바로 알아 사용에 의심나는 데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세조의 博施濟衆의 뜻이 발현된 것이라는 것이다.

19) 전순의, 上揭書, 序文: “古人治病 必以食療爲先 可知矣.”

20) 전순의, 上揭書, 序文: “恭惟我聖上 祖述農黃岐扁之妙 常懷恤民病痾之苦 每勅諄醫 不用食治之法 此醫家之所不忘也.”

21) 전순의, 上揭書, 序文: “雖然 臨病忽遽之際 難考諸方 故臣以食醫心鑑食療本草補闕 食療大全本草等方 考選常用食治簡易之方 爲四十五門以進.”

22) 전순의, 上揭書, 序文: “賜名曰食療纂要 仍令序之.”

23) 전순의, 上揭書, 序文: “又敎曰 是方之中所用穀肉菜果 雖是恒食之物 名實互紊恐 其舛訛 故各門物類之下 或附以正音 使人人 見之了然 用之無疑.”

24) 전순의, 上揭書, 序文: “于以見聖上博施濟衆之道至矣盡.”

셋째로 ⑥은 저자가 이 책을 편찬한 목적이 상용하는 食治에 관한 처방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食醫心鑑」·「食療本草」·「補闕食療」·「大全本草」 등의 醫書에 나오는 簡易方을 45門으로 나누어 편집했음을 밝힌 것이다.

넷째로 ⑩은 이 책을 편찬한 시기가 1460(세조6)년 11월이며 당시에 저자인 全循義의 벼슬은 從2品階인 嘉靖大夫로 行龍驤衛 上護軍의 벼슬에 있었음을 말한다.

3.2 編纂에 이용한 基礎書籍

저자 全循義가 「食療纂要」를 편찬하면서 이용한 서적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의 서문에 나타나 있다. 즉 그가 서문에서, 「食醫心鑑」·「食療本草」·「補闕食療」·「大全本草」 등의 方書가 기초 서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언급한 서적을 조사해보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그가 언급한 순서대로 살펴보자.

3.2.1 「食醫心鑑」

唐나라 昝殷이 편찬한 醫書로서 모두 3卷이다. 「宋史」와 「通志」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食醫心鑑」 3卷, 昝殷(「宋史」 卷207 藝文志6)
「食醫心鑑」 3卷, 成都醫博士 昝商撰(「通志」 卷69)

이로 보아 「宋史」와 「通志」가 편찬된 元代까지는 이 책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나 그 뒤로 사라진 逸書이다. 이 책은 「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食醫心鏡」으로 인용되고 있고, 明 李時珍의 「本草綱目」에는 「食醫心鑑」과 「食醫心鏡」의 두 이름으로 인용되고 있다. 조선 世宗朝에 편찬된 「醫方類聚」에도 인용되고 있는데, 일본인이 「醫方類聚」에서 輯出한 輯錄本이 있다.

3.2.2 「食療本草」

唐나라 孟詵이 편찬한 醫書로 3권이다. 「食醫心鑑」과 같이 宋元대의 書目에 까지 著錄되어 있다.

「食療本草」 3卷 孟詵(「新唐書」 卷59)
「食療本草」 6卷 孟詵(「宋史」 卷207)
「食療本草」 3卷 唐 孟詵 撰(「通志」 卷69)
「食療本草」 3卷 闕(「崇文總目」 卷7)

孟詵은 唐 則天武后 때에 進士가 되고 鳳閣舍人과 台州司馬를 거쳐 同州刺史를 지낸 인물이다. 91세에 죽었는데, 「周禮」에 나오는 食醫의 뜻을 부연하여 이 책을 지었으며, 이외에 「必效方」 10卷과 「補養方」 3卷을 지었다.²⁵⁾ 「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와 「本草綱目」 등에 인용되어 있다. 원서는 逸書이다.

3.2.3 「補闕食療」

唐나라 開元연간에 張鼎이 편집한 醫書로서, 孟詵의 「食療本草」에 누락된 89종을 보충하여 모두 274條를 3권으로 나누어 편집한 책이라 한다. 佚文이 「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와 「醫心方」 등에 인용되어있다.²⁶⁾

3.2.4 「大全本草」

「經史證類大全本草」의 약칭이다. 藥物學에 관한 저서로 「證類本草」로 略稱된다. 31卷이다. 宋나라 唐慎微가 11世紀末에 편찬한 책이다. 大觀 2(1108)年에 刊印할 때에 陳承의 「本草別說」을 補入하고 서명을 「經史證類大觀本草」라 하였고, 政和 6(1116)年 曹孝忠 등이 다시 校刊하면서 30卷本으로 만들고 「政和經

25) 時珍, 「本草綱目」 卷一上.

26) 時珍, 「本草綱目」 卷一上

史證類備用本草」로 개칭하였다. 그후 紹興 29(1159)年에 王繼先等이 再次 校訂 增補하고 서명을 「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32卷)라 하였다. 이후로 여러 刊本이 나왔는데 書名은 그 때마다 다소 변경되었지만,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조선시대에는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를 乙亥字로 인출한 것이 있고,²⁷⁾ 書名을 「經史證類大全本草」²⁸⁾로 改題한 本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문에 보이는 4종의 서적 중 3종은 오래전에 佚失된 책들이다. 그렇다면 全循義가 「食療纂要」를 편찬하면서 인용한 이들 서적은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등의 책에서 抄出 인용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전해온 原書들이 있어서 「醫方類聚」에도 인용하고 또 이 책에도 인용한 것은 아닐까. 필자는 후자의 경우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선초기에는 고려 왕실에서 전래된 宋板本 서적이 많이 있었으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점은 「高麗史」의 다음 기사가 참고가 된다.

元皇太后 遣使...賜王書籍四千三百七十二冊共計一萬七千卷 皆宋秘閣所藏²⁹⁾

원나라 황태후가 고려 국왕에게 서적 4,372책 총 17,000권의 서적을 보내주었는데, 이 책은 모두 宋나라의 왕실도서관격인 秘閣에 소장되어 있던 책이라는 것이다. 당시 고려와 元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우리가 본 醫書들도 이들 秘閣에 소장되었던 宋板本 중의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조선 전기에 「醫方類聚」나 「治平要覽」 등의 방대한 서적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秘閣의 서적이 있어 가능하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점은 조선 초기의 癸未字나 庚子字를 주조할 때 자본으로 사용한 經筵 소장의 책들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食療纂要」에는 서문에서 편찬에 이용한 서적을 밝혔을 뿐 내용에서는 조목별로 인용서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어느 책에서 인용한

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8) 韓獨藥品 藥史館 一山文庫 소장.

29) 鄭麟趾 等, 「高麗史」 卷第34 忠肅王世家(권34: 20板).

것인지를 구분해 볼 수는 없다.

3.3 「食療纂要」의 刊行과 板本

3.3.1 刊行

「食療纂要」가 편찬되고 世祖의 賜名과 보완지시를 받아 全循義가 서문을 쓴 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世祖 6(1460)년 11월의 일이다. 간행이 된 상태에서 이 서문을 쓴 것인지, 아니면 서적의 賜名과 보완 지시만 받고 보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문을 쓴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다행히도 이 책의 현존본인 두 종의 책이 모두 입수되어 있고 이들을 비교 검토한 다음에 그 선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序文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두 본의 비교와 기타 기록의 검토를 통하여 그 간행 경위와 板本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출판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 출판에 관한 문헌으로는 「成宗實錄」과 「攷事撮要」가 있다. 다음은 「成宗實錄」의 기사이다.

右贊成 孫舜孝가 食療撰要」를 올렸다. 의원 全循義가 편찬한 것인데, 손순효가 일찍이 慶尙道監司가 되었을 때 尙州에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책은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있어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³⁰⁾

이 기사는 본서에 관한 문헌기록 중에서 본서의 출판에 관하여 기록한 가장 분명한 것이다. 즉 성종 18(1487)년에 孫舜孝가 醫員 全循義가 편찬한 책을 慶尙道監司 재직시에 尙州에서 출판하도록 하고, 이때에 와서 이 책을 成宗에게 進書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魚叔權의 「攷事撮要」의 八途程道の 각 郡邑

30) 實錄廳, 「成宗實錄」 卷 202 成宗18年 丁未 四月丙申條에 “右贊成孫舜孝 進食療撰要”의 細注에 “醫員全循義所撰 舜孝曾爲慶尙道監司令刊於尙州”라고 하였고, 이어서 “傳曰 此書 便於觀覽 予甚嘉之.”(影印本 11冊 207面 上段)라 하였다. 이 글의 撰要의 撰자는 현존 본과 「訓蒙字會」·「海東文獻總錄」 등에 인용된 기록과 비교할 때 纂자의 誤字임이 분명하다.

에 소장된 冊版條이다.³¹⁾

즉 江原道 襄陽과 慶尙道 尙州의 冊版條에 이 「食療撰要」가 著錄되어 있다. 「攷事撮要」에 수록된 이 책판들은 임진왜란 이전에 板刻된 것이므로 적어도 임란이전에 본 서가 양양과 상주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두 판본은 이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3.3.2 板本

① 金永倬 선생 所藏本

食療纂要 1冊(49張). 木版本. [壬亂以前刊]. 四周單邊. 半郭 20.5 × 16Cm. 有界. 半葉 12行18字. 頭註. 內向黑魚尾. 黑口. 28 × 19.6Cm. 線裝. 序: 全循義 序. 刊記: 天順 四(1460)年 全循義 注記: 紙質: 楮紙

이 책을 검토해보면 序文과 目錄 및 本文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完本이다. 다만 책판의 磨滅이 심하여 判讀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특히 第16·19·35板). 따라서 板刻하고 오랜 시일이 지난 뒤의 後刷本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뒷 표지의裏面에는 이 책을 읽고 소감을 쓴 “何必餐霞服大藥 妄意延年等龜鶴 但於飲食嗜慾中 去其甚者將安樂”이라는 7言絶句 1수를 필서하고, 뒤이어 小字로 “庚申夏 得之於江陵”이라고 적혀 있다. 이 책을 江陵에서 구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강릉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襄陽에서 판각한 冊板에서 인출한 것으로 생각된다.³²⁾ 내용은 모두 風氣 등 45門에 나누어 389條의 處方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아도 物名에 대한 주해는 어느 곳에도 보

31) 魚叔權, 攷事撮要 卷下 八道程途條의 江原道 襄陽과 慶尙道 尙州條에는 각기 食療纂要的 冊版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萬曆13(1585)年 이전의 판본에만 보이고 壬辰亂이 후인 萬曆41(1613)年에 간행한 訓鍊都監字本 「攷事撮要」에서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난중의 책판의 소실로 冊版條를 기록할 수 있는 상태가 못되었던게 아닌가 생각된다.
32) 이 책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제5집. 安東市郡上. 第76面. 文化財管理局. 1991.)에는 이 책의 저자를 金循義로 적고 있다. 아마도 서문의 말미에 行書體로 쓴 저자를 金字로 誤讀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은 全循義가 처음 편찬과 동시에 간행하여 올린 책에다 序文을 追刻하여 수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은 이 책에 실은 서문에 보이는 바와 같은 세조가 物名에 대한 註解를 지시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편찬시기는 全循義가 서문을 쓴 것이 天順 4년 즉 세조 6(1460)년 11월이므로 1460년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경우도 目錄에 수록되었을 뿐 그동안 학계에 소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書影 2·4 참조).

② 김희태 선생 所藏本

食療纂要 1冊.(58張). 木版本. [成宗 18(1487) 板刻本]. 四周單邊. 半郭 21.8 × 17Cm. 有界. 半葉 10行16字. 頭註(筆書). 內向黑魚尾. 黑口 29 × 20.5Cm. 線裝. 앞의 2張 落(序部分) * 版心: 魚尾와 張次만 표시.

이 책은 서문과 목차만 缺落되고 本文은 완전하다. 이 책은 첫 장에 圓形의 작은 墨印이 날인되어 있으나 작고 번져 있어 판독이 곤란하다. 내용은 위 김영탁 장본과 같이 45門에 352條의 처방을 실고 있다. 37조가 줄어드는 것은 같은 병증의 경우 한 곳에 몰아서 실은 결과이며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이 책은 본문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김영탁 장본과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物名에 대한 註解를 달고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물명의 주해는 한글이 아닌 吏讀式의 漢字로 표기되어 있다.

둘째 본문의 門目を 비교해보면 김영탁장본과 같은 45門이면서도 통합하거나 분리한 것이 있고, 病症에 따른 처방도 모아서 편집한 곳이 있고 내용을 통합하면서 문장을 다듬은 부분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정리된 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김영탁장본이 출간된 뒤에 세조가 지시한 物名에 대한 주해와 함께 본문도 함께 정리를 거쳐 간행한 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책은

成宗18(1487)년에 孫舜孝가 간행하여 올린 尙州板本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세조의 지시를 따라 물명에 註解를 달고 본문을 정리하여 간행한 「食療纂要」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書影 1·3 참조).

4. 「食療纂要」의 構成과 記述體系

4.1 構成

앞에서 襄陽板과 尙州板으로 비정한 두 판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序文과 目錄의 有無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門目과 수록된 처방 개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의 검토를 위하여 두 판본의 구성체계를 정리하면 <表 1>과 같다.

<表 1> 襄陽板과 尙州板 「食療纂要」의 門目 比較

門次	㉠ 襄陽板本		㉡ 尙州板本		備考
	門 名	項目數	門 名	項目數	
1	風氣 一	12	風氣	12	
2	傷寒 二	2	傷寒二	3	㉢항목분리
3	心腹痛 附脇痛 三	10	心腹痛 附脇痛	10	
4	咳嗽 附喘 四	9	咳嗽 附喘	9	
5	脾胃 附反胃 五	28	脾胃 附反胃	26	㉢항목통합
6	腰痛附脚氣溫痺四肢 六	17	腰痛附脚氣溫痺四肢	16	㉢항목통합
7	眼目 七	7	眼目	7	
8	耳聾 附鼻塞 八	4	耳聾 附鼻塞	4	
9	咽喉 附口舌 九	4	咽喉 附口舌	4	
10	五噎 十	6	五噎	3	㉢항목통합
11	諸氣 十一	6	諸氣	3	㉢항목통합
12	諸虛 十二	19	諸虛	17	㉢항목통합
13	諸暑 十三	4	諸暑	4	
14	諸熱 附不得眠 十四	8	諸熱 附不得眠	8	
15	嘔吐 附咳逆 十五	7	嘔吐 附咳逆	6	㉢항목통합
16	瘧亂 附轉筋 十六	9	瘧亂 附轉筋	9	

17	黃疸 十七	5	黃疸	1	㉞항목통합
18	水腫 十八*	11	治酒黃	2	㉞門目분리신설
19	諸渴 十九*	23	水腫*	10	㉞항목통합
20	脹滿 二十	2	諸渴*	17	㉞항목통합
21	積聚 二十一	5	脹滿	2	
22	酒病 二十二	3	積聚	5	
23	諸血 二十三	7	酒病	3	
24	骨蒸勞 二十四*	7	諸血·	7	
25	泄瀉 二十五*	4	骨蒸勞*	8	㉞ 항목분리
26	諸痢 二十六*	27	泄瀉*	1	㉞항목통합
27	諸淋 二十七	9	諸痢	9	㉞항목통합
28	蠱毒 二十八*	3	諸淋	9	
29	大便不通 二十九 #	6	蠱毒*	2	㉞항목통합
30	小便不通附小便數 三十	15	大小便不通附小便數	16	㉞門目項目統合
31	諸汗 三十一	2	諸汗	2	
32	諸痔附腸風痔漏三十二	13	諸痔 附腸風痔漏	8	㉞항목통합
33	骨鯁 三十三	1	骨鯁	1	
34	諸丹毒 三十四	5	諸丹毒	4	㉞항목통합
35	癰疽 附肺癰 三十五	4	癰疽 附肺癰	4	
36	癰瘤附癰癰瘡 三十六	6	癰瘤 附癰癰瘡	6	
37	墜墮損傷 三十七	6	墜墮損傷	6	
38	犬咬 獠犬咬虎咬馬毒 三十八	6	凡犬咬 附獠犬咬虎咬馬毒 *	6	
39	諸虫傷 三十九	4	諸虫傷	4	
40	婦人諸病 四十	7	婦人諸疾 *	4	
41	妊娠諸病 四十一	15	妊娠諸病	15	
42	產後諸病 四十二	21	產後諸疾 *	21	
43	落胎半產附胎衣不下 四十三	3	落胎半產 附胎衣不下	3	
44	小兒諸病 四十四	22	小兒諸病	22	
45	驚癇 附癲狂 四十五	5	驚癇 附癲狂	5	

<表 1>에서 보면 「食療纂要」는 두 판본 모두 45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문목의 통합과 분리가 이루어진 것, 같은 문목의 처방 항목을 통합 또는 분리한 것이 있다.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門目的 변화는 襄陽板의 水腫 十八이 尙州板에서는 水腫과 治酒黃의

두 門으로 분리되었고, 大便不通 二十九와 小便不通 三十이 大小便不通으로 통합되었다.

둘째로 동일한 門目에서 처방의 항목 수에 증감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처방을 통합하여 줄인 것이 14개 처에 이른다. 즉 脾胃附反胃 五의 처방수가 28개 인 것을 26개로, 腰痛附脚氣溫痺四肢 六은 17개 에서 16개로, 五噎 十과 諸氣 十一은 각기 6개에서 3개로, 諸虛 十二는 19개에서 17개로 통합되었다. 嘔吐 附咳逆 十五는 7개에서 6개로, 黃疸 十七은 5개에서 1개로 水腫 十八은 11개에서 10개로, 諸渴 十九는 23개에서 17개로, 泄瀉 二十五는 4개에서 1개로, 大便不通 二十九와 小便不通 三十은 21개 처방에서 大小便不通으로 모으면서 16개로 통합되었고, 蠱毒 二十八은 3개에서 2개로 諸痔附腸風痔漏 三十二 는 13개에서 8개로, 諸丹毒 三十四는 5개에서 4개로 통합되었다.

반대로 襄陽板의 처방 수를 분리하여 처방수를 증가시킨 것은 2개 처이니, 傷寒 二의 처방 수가 2개인 것을 尙州板에서는 분리하여 3개로 만든 것과 骨蒸勞 二十四의 7개인 것을 8개로 분리한 경우이다. 門目과 處方의 차이로 본 이 두 판본의 차이는 尙州板이 襄陽板에 비하여 정리된 본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이 두 판본의 문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門目の 門次를 나타내는 수자가 襄陽板에는 目次에서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데 비하여 상주판에는 傷寒 二만이 문차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을 뿐 44개 문목에는 이 門次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목과 처방수를 분리, 통합하여 조정하면서 門次를 나타내는 숫자를 삭제하다가 실수로 1개 처만 삭제하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상주판이 양양판의 뒤에 수정과 보완을 거쳐 편찬된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리고 이 두 板本の 板刻 시기는 襄陽板이 근 30년 빠르지만 책의 印出 시기는 冊版의 磨滅度로 보아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校勘과 그 內容은 빠른 시일 내에 別稿로 다룰 예정이다.

4.2 記述 體系

다음으로 「食療纂要」尙州板의 일부를 註解와 함께 제시하여 본 서의 敍述 방식과 그 내용의 일단을 보이려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판본에는 본문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고로 다루고자 한다.

○ 脾胃 附反胃 (五)門

治脾胃氣弱 不多食 痿瘦

襄陽板: 黃雌雞肉五兩 白麪七兩 葱白細切二合 以切肉作餛飩 下椒 醬 五

味調和煮熟 空心食之 日一服 益臟府 悅顏色

尙州板: 黃雌雞肉五兩 白麪七兩 葱白細切二合 以切肉作餛飩 卽片 匙下椒

醬五味 卽酸醎甘苦辛 調和煮熟 空心食之 日一服 益 臟府 悅顏色

위 인용문은 두 판본의 <脾胃 附反胃>門에 수록된 9번째 처방을 옮긴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門次를 나타내는 숫자 五 는 襄陽板에 만 보인다. 본문에서의 차이점은 없으나 尙州板에만 餛飩과 五味에 대하여 小字註로 된 註解를 붙이고 있는 점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餛飩에는 “卽片匙”라는 주해가, 五味에는 ‘卽酸醎甘苦辛’이라는 주해가 달려 있다. 모든 주해는 이처럼 被註釋語 다음에 小字로 卽자와 함께 해당하는 대치어 또는 풀이를 달아주고 있다. 五味의 경우처럼 주석의 대상이 物名이 아닌 경우도 일부 있다.

<治反胃³³⁾>門

襄陽板: 蘿菹蜜煎 細細嚼服

尙州板: 蘿菹 卽唐菁 蜜煎 細細嚼服

위 인용문은 두 판본의 <脾胃 附反胃>門에 수록된 11번째에 수록된 처방을 옮긴 것이다. 상주판에만 蘿菹에 대하여 小字로 ‘卽唐菁’이라는 주해를 붙이고 있다.

33) 襄陽板에는 胃字 다음에 有效 2자가 있다.

治反胃嘔吐

襄陽板: 大雪梨 一介 將丁香十五粒 刺入梨肉內 用濕紙 裹四五重 炭 火熬
熟 去丁香 熱服

尙州板: 大雪梨 卽味好梨 一介 將丁香十五粒 刺入梨肉 用濕紙 裹四 五重
炭火熬熟 去丁香 熱服

위 인용문은 두 판본의 脾胃 附反胃條에 수록된 12번째에 수록된 처방을 옮긴 것이다. 尙州板에만 大雪梨에 대하여 小字로 ‘卽味好梨’라는 주해를 붙이고 있다. 味好梨는 訓讀하면 ‘맛좋은 배’라는 뜻이다. 本文의 肉자가 襄陽板에는 肉內로 되어 있다.

<腰痛 附脚氣 溫痺四肢 六³⁴⁾>門

治腰脚疼痛

襄陽板: 胡麻一升新者 熬令香杵篩 日服一大升 計服一斗則永差 酒飲 羹汁
蜜湯 皆可服之佳

尙州板: 新胡麻 卽眞荏子 一升 熬令香杵篩 日服一大升 服一斗則永差 酒
飲羹汁蜜湯 皆可服之佳

위 인용문은 두 판본의 腰痛 附脚氣 溫痺四肢條의 첫번째에 수록된 처방을 옮긴 것이다. 襄陽板의 胡麻一升新者が 상주판에는 新胡麻一升으로, 計服一斗는 服一斗로 되어있다. 같은 내용이지만 문장을 다듬은 경우이다.

<五噎 十³⁵⁾>門

治噎病不下食

襄陽板: 春杵頭糠半合 麵四兩 相和溲 作餠飪 空心食之.

尙州板: 春杵頭糠半合 麵四兩 相和溲 作餠飪 卽羅花 空心食之.

위 인용문은 두 판본의 五噎條의 3번째에 수록된 처방을 옮긴 것이다. 餠飪에 대한 주해로 쓴 羅花는 崔世珍의 「訓蒙字會」에 ‘나화’로 보인다. 이것은 「食療纂要」의 내용이 다른 서적에 언급된 것 중에서 유일한 것이다.³⁶⁾

34) 門次를 뜻하는 六자는 襄陽板에만 보인다.

35) 門次를 뜻하는 十자는 襄陽板에만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食療纂要」의 양양판과 상주판의 기술 방식에는 뒤에 간행된 상주판에만 物名이나 度量衡의 단위 등에 대한 주해가 부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全循義의 序文에서 본 바와 같이 世祖의 지시에 따라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서 편찬된 것이 尙州板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5. 「食療纂要」 尙州板에 보이는 國語學資料

5.1 尙州板 「食療纂要」의 註解

「食療纂要」에 대한 註解는 襄陽板으로 비정되는 김영탁 장본에는 보이지 않고 成宗 18년에 尙州에서 판각한 김희태 장본인 尙州板에만 보인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食療纂要」의 處方에 보이는 物名에 대한 註解에 대한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世祖는 全循義가 편찬하여 올린 책에 書名을 내리면서,

이 책의 처방에 쓰인 穀·肉·菜·果는 비록 항상 식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복잡하여 잘못 쓸까 염려되므로 各 門의 物類 다음에 더 러 正音을 달아 주어 사람들이 보고 분명하게 알아서 이용하는데 의심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³⁷⁾

라고 써서 혼동하기 쉬운 物名에 대하여 正音으로 주를 달아주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서문의 언급을 따른다면 世祖가 지시한 대로 物名下에 正音을 달아주고 있는 책이 있다면 이 책이 완성된 책인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책의 실물을 보기 이전까지 이 책의 존재를 알려준 문헌인 「海東文獻總錄」과 「訓蒙字會」를 살펴보

36) 崔世珍, 「訓蒙字會」 卷中, 食饌條에 보인다.

37) 全循義, 「食療纂要」의 序文에 “是方之中所用穀肉菜果 雖是恒食之物 名實互紊 恐其舛訛 故各門物類之下 或附以正音 使人人見之了然 用之無疑.”

자.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소개한 문헌은 앞에서 언급한 敬窩 金佺의 「海東文獻總錄」이다. 이 책에는 「食療纂要」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食療纂要 全循義 以食醫心鑑食療本草補闕食療大全本草等方 考選常用食治 簡易之方 爲四十五門 各門物類之下 或以諺釋 使人易考而易曉以進 賜名曰食療纂要 仍命序之³⁸⁾

이 대문은 「食療纂要」의 序文을 節錄하고 약간의 첨삭을 더한 것이다. 종래에 「食療纂要」에 대한 정보는 이 金佺의 기록을 통해서 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 책에는 몇 글자가 바뀌어있다.

- 各門物類之下 或附以正音 使人人見之了然用之無疑(襄陽板所載序文)
- 各門物類之下 或以諺釋 使人易考而易曉(海東文獻總錄 醫家類)

序文의 正音이 諺釋으로 바뀐 것이다.

다음으로 中宗朝 崔世珍의 「訓蒙字會」에는 단 한번 「食療纂要」를 인용하고 있다. 즉

餽나화박 飪나화탁 食療纂要 餽 나화³⁹⁾

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正音과 諺釋이라는 어휘와 「訓蒙字會」의 한글로 표기된 나화로 볼 때 「食療纂要」의 주해는 옹당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尙州板으로 비정되는 김희대씨 소장 「食療纂要」에 보이는 物名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食療纂要」에는 吏讀式 漢字로 표기된 우리 말 物名이 60개이고, 기타가 8개 수록되어 있다. 이제 본문에서 이들을 抄出하여 어휘의 성격별로 나누어 모은 다음, 被釋語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 吏讀式 漢字로 표기된 우리말을 적었다.

38) 金佺, 「海東文獻總錄」 醫藥類 食療纂要條(影印本 542-3面).

39) 崔世珍, 「訓蒙字會」 卷中 食饌 “餽飪” 條.

釋語 다음에는 「訓蒙字會」와 「物名考」·「廣才物譜」 등의 辭書에 보이는 내용을 摘記하여 참고로 보인 것이다.

< 食療纂要」의 註釋에 보이는 物名에 대한 諺釋>

가. 身體類

1. 【肝】: 眞牙(猪肝·兔肝·雄鷄肝). 訓蒙 上14r: 간 간.
2. 【肚】: 大腸(開肚 猪肚) 肚(두): 腸. 牛肚: 冒佾 稱萬牙.(牛肚).
訓蒙 上14vr: 배. 卽胃也.
3. 【脾】: 滿牙(猪脾). 訓蒙 上14r: 말하비. 又稱 혀다기.
4. 【胛胘】: 皮子(鷄胛胘). 物: 音皮蚩 멀더구니. 廣: 禽部 鳥胃 멀더구니.
5. 【腎】: 太豆(猪腎 鹿腎 羊腎). 訓蒙 上14r: 콩팥신 太豆: 콩팥 *未見 혼독
6. 【心】: 蓮筒(猪心). 訓蒙 上14r: 념통심. 又稱 마음심.
7. 【肺】: 腑窩(羊肺) * 訓蒙上14r: 부화폐 * 廣: 形氣部
8. 【脬】: 尿管. * (猪脬) * 訓蒙 上14v·28r: 오줌깨포 * 物: 고기부레

나. 鳥獸類

1. 【鷓鴣】: 法谷鳥 2회
2. 【鶉】: 毛次羅只(鶉肉) 廣: 禽部 原禽類 鶉(순) 피초라기
毛次羅只: 모차라기. 未見.
3. 【鵝】: 家鵝. 訓蒙 上9r: 거유아
4. 【鴨】: 家鴨.(白鴨, 靑頭鴨, 白鴨, 家鴨). 訓蒙上9r: 올하압.
집오리(物: 有情類 羽蟲.)
5. 【野鷄】: 雉. 평
6. 【獐】: 吾兒(兒), 伊(獐肉). 訓蒙 上9r: 오소리 단.

다. 魚貝類

1. 【鰻鰻魚】: 蛇長魚. 배암장어(廣: 鱗部 無鱗魚部).
2. 【牡蠣】: 屈照介.
3. 【淡菜】: 紅蛤. 홍합(廣: 介部 蛤蚌類).
4. 【蠶魚】: 加母致. 가물치(廣: 鱗部 無鱗魚類 蠶魚).
5. 【鯉】: 加里麻致 * 訓: 가리만딩.
6. 【鯽魚】: 鮒魚. 붕어(廣: 鱗部 魚類).
7. 【鰻魚】: 氷魚. 似鯉魚, 食泥. 숭어(廣: 鱗部 魚類)

라. 蔬菜類

1. 【韭】: 厭交菜(韭菜). 부추·줄·술·정구지(廣: 菜部 葷 辛類).

2. 【葵菜】：阿郁. 아욱.
3. 【蘿菔】：唐菁. 냇무우. 萊菔(物: 無情類 草) · 무우,
萊菔(廣: 菜部 葷辛類).
4. 【萊菔】：唐菁. 냇무우, 萊菔(物: 無情類 草).
5. 【蔓菁】：眞菁. 솟무우. 燕菁, 諸葛菜, 馬王菜(物: 無情類 草).
6. 【菰菜】：拜菜. 菰 夏稱(物: 無情類 草) * 배추.
7. 【薤】：富菜, 付菜. 엄교(廣: 菜部 葷辛類)
8. 【山藥】：薯蕷. 마. 薯蕷(物: 無情類 草)

마. 穀類

1. 【糯米】：粘米. 糯米. 찰쌀(物: 無情類 草). * 糯米 · 粘 粘稻 찰벼.
2. 【靑粱】：生銅粘粟(생동찰량 靑銅粟).
3. 【麥麴】：皮. 麥麴. 小麥屑皮. 밀기울(物: 無情類 草)
4. 【冬麻子】：梁麻子.
5. 【白油麻】：白荏子.
6. 【烏麻】：黑眞荏子. * 검은참깨.
7. 【薏苡】：伊乙梅. 薏苡. 율무우(物: 無情類 草).
8. 【荏子】：水荏. * 荏子. 蘇麻實名(物: 無情類 草). * 蘇麻: 種取子. 搾油.
들깨. 水麻(物: 無情類 草). 水荏: 水蘇麻. 들깨(廣: 穀部 麻麥
縹類).
9. 【香油】：眞油. 香油: 생깨기름(物: 無情類 草).
참기름 = 眞油 · 白油(廣: 飲食部 油).
10. 【荊芥】：鄭棼菜. 경가. 薑芥 · 鼠薊(廣: 草部 芳草類).
11. 【胡麻】：眞荏子. 烏者 良(검은 것이 좋다). 거른깨. 巨勝(物: 無情類 草)

바. 果實類

1. 【酸棗仁】：野棗. 酸棗: 樹皮細而硬 文似蛇鱗 實圓小 微酸. 이맷 대추.
山棗(物: 無情類 木). 山棗仁: 맷대추 씨 속에 든 알맹이.
2. 【雪梨】：味好梨. 雪梨: 梨. 一名乳梨 · 香水梨 · 禦(廣: 果部 山果類).
* 味好梨: 맛존배 * 뜻을 풀어 놓은 경우. * 味: 맛. 物之精液,
隨性而成五味(廣: 物性部 味).
3. 【消梨】：味甘梨. 消梨. 入口勻消. 如東俗盆梨 · 香梨等 梨.
4. 【胡桃】：唐楸子. 胡桃: 호도. 又 가래(廣: 果部 山果類) 唐楸子: 호두.

사. 藥草類

1. 【葛粉】：葛根末. 葛粉: 葛根有大慶中 出白粉 水飛 可作飲食. * 末: 가
로. 物屑也. 粉 · 屑(廣: 物性部 物體). 침뿌리가루.
2. 【蚌】：田螺 03b/2: 田螺. 蚌. 魁蛤(物: 有情類 介蟲). 고막(廣: 介部 蛤蚌
類). * 田螺(전라): 우렁이(物: 有情類 介蟲 · 廣: 介部 蛤蚌類).
3. 【鷄頭實】：辰?蓮 一名勿日 鷄頭: 芡實 · 감인(廣: 果部 水果類). 芡(物:

無情類 草).

4. 【麥門冬】: 冬沙伊. 麥門冬: 葉大者如鹿葱 小者如韭 根如連珠 實黑而圓. 겨우살이(物: 無情類 草). 冬沙伊: 겨우사리(겨우살이).
5. 【餽飩】: 羅花. * 餽飩 - 餽 나화막 飩 나화탁. 食療纂要 餽 -: 나화(訓蒙字會 卷中 饌). 餽飩: 국슈건지(廣: 飲食部 湯餅). * 수제미: 餽飩(우리말큰사전).
6. 【百合】: 介日伊(生百合). * 百合: 葉如柳葉而潤厚 遍附莖身 根如葫蒜 花如萱花而白色 不白者非 也 흰날이. 摩羅 · 中庭 · 中逢花 · 重箱(物: 無情類 草). * 介日伊: 未見. 개날이(개나리).
7. 【豉】: 精掬(豉汁). * 豉: 며조. 幽菽 · 醬黃 · 燻造 · 末醬(物: 無情類 草). * 메주.
8. 【郁李】: 山梅子. * 郁李: 산매자. 피이스랏. 爵李 · 車下李 · 雀梅(物: 無情類 木).
9. 【車前】: 布伊作只. * 車前: 길경이(廣: 草部 隰草類). * 布伊作只 - 포기 지기.
10. 【通草】: 木通. * 通草: 으흐름. 萬年藤 · 附支 · 木通(物: 無情類 草). 어흐름. * 木通: 我國關東地 有一種藤 名曰木通. 大如人股 其中 通癰 過于通草 用之入藥 去濕有力 亦名木防己 然又非防己也(物: 無情類 草).
11. 【好恭】: 雀舌. * 雀舌: 茶品名(物: 無情類 木).
12. 【胡荽】: 高柴.
13. 【餛飩】: 片匙. * 餛飩: 둥딤떡(廣: 飲食部 餌).
14. 【黃耆】: 抵麻. * 黃耆: 黃芪(廣: 草部 山草類). 黃芪: 단너삼. 등 춤.
15. 【饋飯】: 蒸飯.

아. 器物類

1. 【銚子】(요자): 煎茶器(燂器). * 銚: 주전자 도. 俗呼銅銚(訓蒙字會 卷中 銚). * 銅銚(동요): 茶壺子. 주전자(廣: 飲食部 茶壺子).

자. 其他

1. 【五味】: 酸 鹹 甘 苦 辛
2. 【五辣】(오랄): 蔥 韭 蒜 薤 薑.
3. 【臠】(화): 或云鷄肉 或云無菜 * 주의 성격: 異方의 소개.
4. 【麋】: 一歲鹿.
5. 【鵲鵲】(홀위): 卽都飛鳥.
6. 【二大盞】: 二升.
7. 【一大盞】: 一升.
8. 【一握】: 一方 加香豉二合, 香豉卽精掬.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葛粉: 葛根末(쑤뿌리가루), 鰻려魚: 蛇長魚(뱀장어), 百合: 介日伊(개날이), 腎: 太豆(콩팥) 등과 같이 우리말 이름을 吏讀式의 한자로 적어서 附記하고 있다.

이들 어휘 중에는 이 책보다 뒤에 나온 崔世珍의 「訓蒙字會」에 餹飴(박탁)을 설명하면서 “나화”라고 적은 것이 “羅花”로 표기되어 있어서 本書의 序文에서 언급한 正音이나 「海東文獻總錄」의 諺釋의 의미의 해석을 한글로 적었다는 뜻이 아닌 우리 속말로 풀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은 좀 더 폭 넓은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된 뒤에야 풀릴 것으로 생각된다.

6. 結 論

朝鮮 初期의 名醫인 全循義가 편찬한 食醫書인 「食療纂要」는 그간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온 책이다. 이제 처음으로 이 책을 발굴하여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전순의는 賤民 신분으로 醫術을 익혀 世宗朝에 발탁된 醫學習讀官 출신의 醫官으로서 본관은 鎭安이다. 그는 세종 27(1447)년에 편찬한 조선전기의 대표적 醫書인 「醫方類聚」의 편집에 참여한 醫員 가운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同 29(1447)년에는 金義孫과 함께 「鍼灸擇日編集」을 편찬하는 등의 학술활동으로 名醫의 이름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文宗의 병세를 오판하는 실수로 端宗朝에는 典醫監의 청지기로 강등되는 등 不遇한 세월을 보내다가 世祖의 즉위와 함께 세조의 총애를 받아 左翼原從 一等功臣의 錄勳을 받으면서 再起에 성공하여 賤出의 의원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正憲大夫 同知中樞院事에 이르는 영예를 누렸다.

둘째, 전순의가 世祖 6(1460)년 11월에 편찬한 「食療纂要」는 그의 서문을 싣고 있어서 「食療纂要」가 전순의의 저서임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인 동시

에 全循義의 醫藥論이라 할 만한 글로서 그가 食療를 중시하는 의사였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자료이다. 아울러 세조가 평소 食治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이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셋째, 전순의의 학술활동은 醫書를 편찬하는 일 이외에 국왕을 상대로 한 醫書의 侍講에도 참여하였으니, 세조 5(1459)年과 同 9(1463)년에 열린 侍講에서 醫書를 강한 것이 그것으로, 儒醫가 아닌 의원으로서 경연에서 의서를 시강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넷째, 「食療纂要」는 세조 6(1460)년 11월에 편찬한 것이다. 世祖는 醫官들에게 항상 食治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전순의가 食治에 관한 처방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食醫心鑑」·「食療本草」·「補闕食療」·「大全本草」등의 醫書에 나오는 簡易方을 초출하여 45門으로 나누어 편집하여 撰進한 것이다. 세조는 이 책을 보고 「食療纂要」라는 서명을 내리고, 이 책에 사용된 처방에 나오는 物名에 正音を 달아주어 사용할 때에 의심 가는 데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襄陽板에는 物名에 대한 주석이 없는데 비하여 尙州板에는 吏讀式의 漢字語로 된 주석이 붙게 된 이유이다.

다섯째, 尙州板 「食療纂要」는 양양판에 비하여 항목이 통합되고 문장이 다음 어졌으며, 物名에 주석이 달리는 등 대체로 정리된 모습을 보여준다. 두 판본 모두 壬亂 이전에 印出된 것이기는 하지만 後刷本인 관계로 磨滅이 심한 부분이 있다.

여섯째, 尙州板 「食療纂要」에는 吏讀式 漢字로 표기된 우리 말 物名이 60개와 기타 어휘에 대한 주해가 8개 도합 68개(중복되는 것 제외)의 어휘에 대한 주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抄出하여 어휘의 성격별로 나누어 모은 다음, 被釋語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 吏讀式 漢字로 표기된 우리말을 적고, 釋語 다음에는 「訓蒙字會」와 「物名考」·「廣才物譜」 등의 辭書에 보이는 내용을 摘記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일곱째, 「食療纂要」에 보이는 물명의 주해는 訓民正音が 창제되고 나서 수십 년도 채 안되는 시기임에도 한글이 아닌 이두식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중에서 葛粉 → 葛根末(칫뿌리가루), 鰻𩺰魚 → 蛇長魚

(뱀장어). 百合 → 介日伊(개날이), 腎 → 太豆(콩팥) 등과 같이 우리말 이름을 吏讀式의 한자로 적어서 附記하고 있어서 조선 전기의 국어 어휘의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어휘 중에는 이 책보다 뒤에 나온 崔世珍의 「訓蒙字會」에 餠飩(박탁)을 설명하면서 “나화”라고 적은 것이 “羅花”로 표기되어 있어서 本書의 序文에서 언급한 正音이나 「海東文獻總錄」의 諺釋의 의미의 해석을 한글로 적었다는 뜻이 아닌 우리 속말로 풀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은 학계의 연구가 좀 더 진행된 뒤에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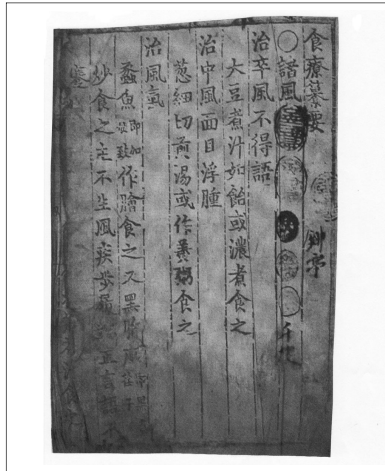
- 全循義. 「食療纂要」(개인소장).
實錄廳. 「世宗實錄」(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_____. 「文宗實錄」(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_____. 「端宗實錄」(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_____. 「世宗實錄」(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_____. 「成宗實錄」(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崔世珍. 「訓蒙字會」(東洋學叢書 第1輯), 서울: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1983.
金然. 「海東文獻總錄」(影印本).
魚叔權. 「攷事撮要」(영인본, 韓國의 冊版目錄 上冊수록),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徐居正. 「四佳集」(韓國文集叢刊 第10-11輯),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脫脫 等. 「宋史」.
鄭樵. 「通志」.
歐陽修. 「新唐書」.

李時珍. 「本草綱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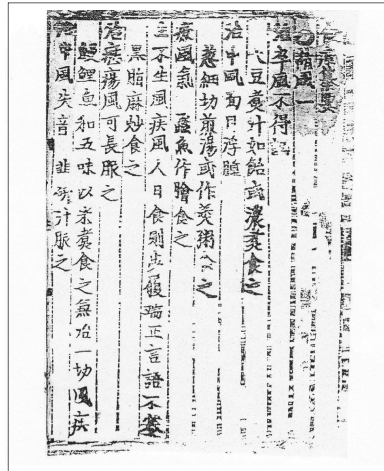
李基文. 「訓蒙字會研究」,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1972.

鄭良婉 等.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物名考・廣才物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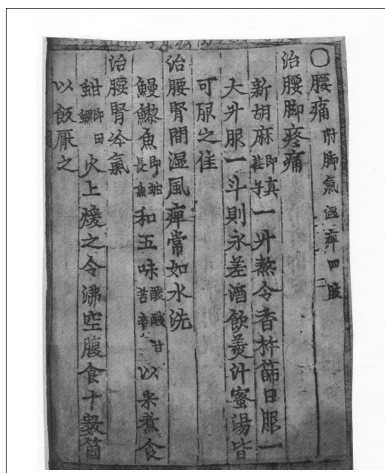
<參考圖錄>



<書影 1> 食療纂要 尙州板



<書影 2> 食療纂要 襄陽板



<書影 3> 食療纂要 尙州板



<書影 4> 食療纂要 襄陽板

